

우수교육
프로그램

고교연계형 입학사정관제의 모델_ 경희대학교의 또 다른 실험

임진택 | 경희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1997년 미국에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다. 지난 4년 입학사정관제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다. 학업보다는 잠재력과 열정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 대학인재상과 전공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 등 다양하다.

도입 당시부터 경희대는 고교와 연계에 주목했다. 경희대 입학사정관제를 「고교연계형 입학사정관제」로 명명하고, 한국형 입학사정관제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 입시와는 다른 새

로운 실험이었다. 그 가치의 핵심은 “신뢰”다. 신뢰관계는 ‘사람과의 스킨십’과 ‘정보의 공개’로 가능한 일이다. 사람과의 스킨십을 위해 평가권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교사를 입학사정관전형 평가에 직접 참여토록 했다. 평가에 참여한 교사들은 빅마우스(bigmouth)로 입학사정관전형 참여과정을 일반교사에게 공개하고 확산시켰다. 또 한편 고교 교육과정과 실질적으로 연계한 입시제도이야말로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대학이 원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창의인성교육과정과 연계한 ‘고교교육과정연계전형’, 진로적성교

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극 반영한 ‘창의적 체험활동전형’을 신설하였다. 그 외에도 창의적 체험활동보고서와 교사추천서의 전형자료 활용, 진로캠프와 교수진로특강 등 학교중심의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직교사의 입학사정·자문위원 참여

경희대에는 105명의 현직 교사와 장학사가 입학사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기존의 일회성 입시자문이 아니라 연중 실질적인 입학사정과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매년 4월초에 지역별 진학지도에 경험이 있는 교사를 입학사정자문위원을 위촉한다. 평가의 전문성이 축적되도록 대부분 위임하고 소수자만 신규로 위촉한다. 위촉된 입학사정자문위원들은 5월부터 6월 고교교육과정연계전형의 고교별 추천학생을 지역에서 현장 면접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7월에 대학에서 주관하는 고교교육과정연계학생 대상 잠재력향상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그 보고서와 잠재력향상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는 고교교육과정연계전형의 서류평가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1월에 2박 3일간 정시모집 기회균형선발전형의 서류평가에 직접 참여한다. 입학사정자문위원은 전임사정관과 위촉교수사정관과 한 조를 이뤄 서류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채점 결과를 전형성적에 직접 반영한다. 물론 평가전에 모의평가와 평가지침

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을 받는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입학사정자문위원의 이력을 파악해 해당 지역 학생을 배제하는 「지역상피제」와 근무 경험이 있는 학교 학생을 배정하지 않는 「고교상피제」를 운영하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한 성적 반영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은 고교의 교육과정과 학생지도 노하우를 배우고 고교는 입학사정관전형 평가 과정을 실제 경험함으로써 진학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다. 이런 경험을 살려 일선 고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단위의 입학 여론주도층으로 입학사정관제 확산과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고교교육과정연계전형과 창의적 체험활동전형의 신설

두 전형 모두 ‘창의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능시험에 맞춘 획일적 교육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 재량권을 복원한 창의 인성교육이다. 이는 학교 중심의 심화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교육결과만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살피는 학교 현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대입전형 단순화와 전형 통합, 사교육 부담 경감”이 아니라 “창의적 인재 선발과 다양성 존중,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존중”에 맞춰야 한다. 입학사정관제가 학교생활 충실형 강조하다보면 자칫 학교안의 우물안 개구리를 만

들지 모른다. 대학은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인재”를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창의성에 주목해야 한다.

고교교육과정연계전형은 창의 인성교육과정이 우수한 학교의 학생을 추천받는 입시전형이다. 예컨대 창의인성모델학교, 교육과정운영우수학교, 과학중점학교, 자율형공립학교, 특색있는 학교 등 정부가 인정한 창의인성교육 우수학교가 대상이 된다. 다만 수도권과 특목고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본의 지정교 입시제도처럼 모집인원의 4배수정도만 추천받아 합격가능성을 높였다. “학교가 추천하면 뽑는다”는 신뢰관계의 표현으로 학교장의 추천권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이 학생들에게는 고3 여름방학에 잠재력향상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해외 석학의 명사특강, 사전에 고지한 지정도서를 읽고 토론하는 독서토론, 조별 창의력향상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게 된다. 이외에도 지역에서 현직교사인 입학사정자문위원과 현장 인터뷰를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받는다. 선발 결과 이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의 등록률이 매우 높고 학교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추천받은 학생들의 내신 성적도 다른 입학사정관전형에 비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학교도 신중하게 학생을 추천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교별 특성화된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학생이 성실히 이수했는지 여부

에 대한 평가는 숙제로 남아 있다.

창의적체험활동전형은 학교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극적이고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리 교과활동 외에 비교과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대학이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없다. 고등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경험하는 비교과 활동의 성과들이 대학 입학과는 무관하다면 고등학교의 진로지도에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기대의 반영이 바로 전형 신설의 배경이다. 창의적체험활동전형은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창의적체험활동보고서 또는 활동자료만으로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다. 그 외 모든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창의적체험활동보고서를 전형자료로 활용한다. 교육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살피기 위해서 학교의 진로적성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 결과물을 전형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사유하고 다양한 경험한 학생이야말로 대학 입학사정관제에서 말하는 미래인재이고 창의적 인재이다.

진로캠프와 진로특강

스스로를 찾게 하라. 다양한 경험에서 넓은 기초소양이 쌓이고 활동 과정에서 성장한다. 진로교육은 넓은 교양, 기초소양을 쌓

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시기에는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 수업을 받을 만큼의 풍부한 기초소양을 기대한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미래사회가 원하는 바로 ‘창의성의 보고(寶庫)’이다. 협소한 진학지도를 넘어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희대는 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학 초청 전공체험캠프의 활성화이다. 대학으로 학생을 초청하여 우주관측체험교실, 로봇프로그램교실, 과학체험교실, 문화체험교실, 정보디스플레이학과체험교실 등 실질적인 전공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게 미래 비전 설계캠프를 개최해 자아발견, 자존감향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의 개방화이다. 대학의 위촉교수사정관과 전임사정관이 한 조를 이뤄 고교 현장을 직접 방문 진로특강과 입학사정관제 카운슬링을 시행하고 있다. 또

한 대학 동아리와 고교 동아리의 연계 등 진로연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희대는 ‘고교와 대학의 단순한 연계’가 넘어서 ‘고교와 대학의 신뢰’를 우선한다. 가장 가까운 곳에 지켜 본 교사의 객관적인 평가 없이는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없다. 입학사정관제 정착 여부는 고교에 달렸다. 입학사정관제는 “가르친 사람이 평가해야 한다”는 교육철학의 복원이다. 입학사정관제야말로 교사들의 노력과 헌신 없이는 정착되기 어려운 제도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기초 자료 생성의 주체이자, 평가권의 당사자이다.

고교가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야말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임을 구성원들이 공감하는데 있다. 대학은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해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필자소개

임진택 | 경희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수원과학대학, 해전대 겸임교수,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EBS TV입학사정관 고정 패널,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고문, 경희대

학교 책임입학사정관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인간관계의 이해, 현대사회와 행정이 있다.